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나요?

이산중×이산고 마을탐구보고서

이웃, 안부를 묻다[●]



목차

프롤로그 · 6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 소개 · 8

이산중·고등학교, 함께한 학생들 · 13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이야기를 듣다 · 20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과 이웃 · 30

마을이란?

이웃이 뭘까?

우리가 꿈꾸는 마을은

안부를 물을 때 건네고 싶은 말 한마디

어떤 이웃을 만나볼까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나요? · 38

이산중학교가 바라본 이웃, 안부를 묻다 · 52

첫 번째 이웃_세종공인중개사사무소 박혜련 님

두 번째 이웃_에센츠책방카페 정은경 님

세 번째 이웃_신도J마트 박인석 님

네 번째 이웃_이산중학교 국어 담당 김민주 님

다섯 번째 이웃_이산중학교 2학년 김도윤 학생

여섯 번째 이웃_창업교육전문가 유현경 님

이산고등학교가 바라본 이웃, 안부를 묻다 · 76

첫 번째 이웃_세모네모살롱카페 이상준 님

두 번째 이웃_수학교습소 고유향 님

세 번째 이웃_한화포레나동탄호수경로당 김세진 님

에필로그 · 94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봄에 시작한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은
겨울의 초입에서야 이웃을 만났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자리한 이산중학교, 이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신도시 밀집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힘든 시기를 지나온
지역공동체 이웃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스스로 어른들과의 어색함을 극복하고
청취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과 쑥스러움은 어른이라고 해도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웃을 찾아간 학생들은
그들만의 시선과 생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으며
또한 작은 성장을 했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고 가을과 겨울이 맞이한
이산중학교, 이산고등학교 참여 학생들은
거리상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성시미디어센터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 소개

인구 백만 특례시를 목전에 둔 화성시는 빠른 인구 증가율과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다. 빠른 도시의 성장과 높은 경쟁력은 희망의 도시 화성시의 미래가 될 것이다.

마을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젊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새로운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틈을 좁히고 코로나19 이후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닫힌 지역사회의 이웃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 기록했다. 첫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서먹하고 어색함을 스스로 극복해 먼저 이웃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이웃을 바라본 청소년의 관점과 생각을 정리하여 결과집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글쓰기, 영상 촬영, 그림 그리기 등 각각의 담당별 기초 교육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집을 완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산중학교, 이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가 느꼈을 우리 이웃의 따뜻함을 다른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길 바라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전체 프로그램 일정

2023년 5월 이웃, 안부를 묻다 홍보 및 모집

2023년 6월~10월 교육 10회 및 취재

2023년 12월 출판

교육 운영 및 지원

화성시미디어센터 / 담당 박양우

교육 프로그램 내용

1강 마을 아카이브란?

2강 취재 기획안 작성

3강 인터뷰 준비

4강 인터뷰 촬영법 기초이론

5강 인터뷰 촬영

6강 영상 편집

7강 기초 드로잉

8강 다양한 재료로 일러스트 제작

9강 일상 일러스트 그려보기

10강 인터뷰 원고 정리

프로그램 강사

차영선 / 인터뷰·글쓰기·결과집 제작 담당

현지윤 / 영상 촬영·편집 담당

김지현 / 그림 그리기 담당

참여 학교, 담당 교사와 참여 학생

이산중학교

김민지 교사

박세준, 안보현, 안태강, 이나예, 이윤서,
이윤아, 임나현, 조용준, 최윤진



이산고등학교

강보미 교사

강다경, 강태현, 안재윤, 정지영





Chapter 1.

이산중 · 고등학교,
함께한 학생들

이산중·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든 이산중학교

이산중학교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와 동탄1신도시 나루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서 바로 오는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서 다소 교통편이 불편하지만, 학생들은 즐겁게 학교에 다닌다.

신설 학교인 이산중학교는 오래된 전통 대신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학교 이름부터 교가, 교훈까지 어느 하나 학생의 손길이 묻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인지 참 정겹다. 교훈은 ‘손잡아 줄게’이다. 유창한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공감이 가는 말을 활용하여 ‘함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초대 김인옥 교장 선생님께서 당시 근무하던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교훈이라고 한다. 어느 학교와 다른 것이 교훈만은 아니다. 이산이라는 교명과 교가의 탄생 일화도 참 재미있다.

이산중학교란 이름은 2018년에 개정된 교명이다. 2017년 3월 감배중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으나 지명을 딴 ‘감배’라는 이름보다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받았다. 교육공동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지역 사회 구성원 대상으로 ‘학교 이름 공모전’을 실시하여 정해진 이름이 ‘이산’이다. 지역 역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조 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좋은 교육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정조 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산중학교’로, 도서관은 ‘홍재서관’으로 명했다.

교가의 탄생은 더 의미 있다. 당시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가로 넣을 가사를 함께 만들고 그 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다듬어서 가사를 만들었다. 함께 쓴 가사에 작곡가가 음을 붙여 교가가 완성됐다.

이산중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든 의미가 가득한 학교이다. 그리고 현재도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게 학교를 꾸려가고 있는 현재진행형 학교이다.

이산고등학교

이산고등학교는 ‘꿈·열정·감동으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학교 비전 아래에서, 품격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다. 우리 학교는 일찍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스스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 38개의 학급에서 약 1,200명의 학생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력을 갖추며 꿈을 키워 가고 있다. 또, 우리 학교는 올해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로서 미래 디지털 역량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 행사와 학생 주도의 교육 활동을 통해 자율 역량과 기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함께한 학생들

이산중학교



박세준 / 이산중학교 1학년

저는 친구들의 권유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가를 만나보고 싶고,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보현 / 이산중학교 2학년

선생님의 추천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 중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안태강 / 이산중학교 2학년

저는 감초 같은 사람입니다.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은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PD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기도 했구요. 저는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나예 / 이산중학교 2학년

이웃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흥미로웠고, 인터뷰를 직접 한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윤서 / 이산중학교 1학년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이 흥미로워 보여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이윤아 / 이산중학교 1학년

저는 장래 희망이 PD라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중에 경찰관, 소방관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용준 / 이산중학교 2학년

프로그램이 재미있어 보여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웃이든 가리지 않고 아무나, 누구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 형편없는 그림 실력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나현 / 이산중학교 2학년

인터뷰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여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최윤진 / 이산중학교 1학년

제 꿈이 PD라서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장래 희망을 결정해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산고등학교



강다경 / 이산고등학교 2학년

영상 촬영과 제작에 관심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 식당 사장님, 사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이웃을 만나보고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강태현 / 이산고등학교 2학년

저를 표현하는 단어는 나방입니다. 나방이 불만 보면 달려들듯이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영상 촬영과 편집에 관심이 많았고 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나와 잘 맞겠다고 생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마을에서 볼 수 있지만 궁금했던 이웃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채워 나가고 싶습니다.



안재윤 / 이산고등학교 2학년

저를 표현하는 단어는 용두입니다. 어느 집단에 가서든 우두머리가 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영상이나 책에 관심이 있었고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양한 이웃을 만나보고 개개인의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영상제작물과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지영 / 이산고등학교 2학년

저는 물처럼 유유자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다큐를 배워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젝트의 취지가 저와 잘 맞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궁금증은 많은데,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성격이라 이번 계기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궁금했던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찍어보고 싶습니다.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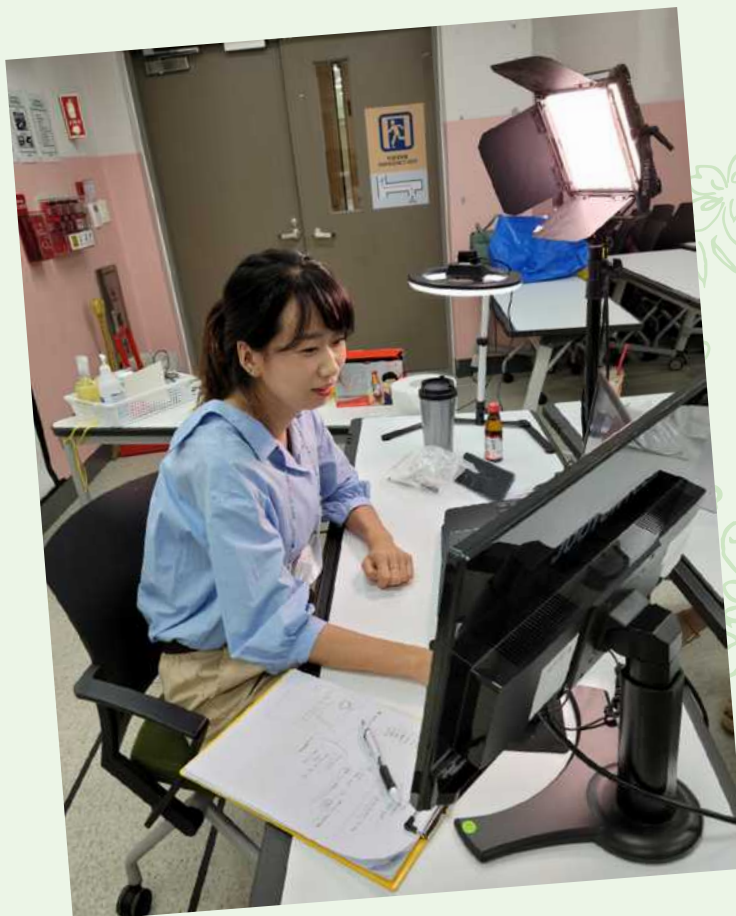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이야기를 듣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이야기를 듣다

차영선 강사 인터뷰·글쓰기·결과집 제작 담당

안녕하세요. 차차로운 주식회사 대표 차영선입니다.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글쓰기, 기록집 제작을 맡았습니다. 저는 마을을 다니며 기록하고,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제가 직접 인터뷰해서 책을 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마을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했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자면, 첫날에는 프로그램 전반적인 내용과 마을을 주제로 서로





생각을 나눠봤어요. 이웃의 범위에 대해, 이웃에 관심을 가지면 생기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해봤죠. 그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을 주제였을 거예요.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주변에 관심 갖는 일일 뿐이거든요. 마을에 깊숙이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기 어려워하거든요. 내가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두 번째 날부터는 아이들과 취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참여 학생들끼리 실제로 인터뷰도 해봤어요. 앞으로 만날 이웃을 생각하며 질문지도 작성했고요.

학생들이 인터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므로, 실전에 나가기에 앞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여자들끼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의 안부를 묻자는 의미로 서로 인터뷰를 해봤어요. 다른 학년끼리 짝을 지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1년 선후배지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잖아요. 후배는 선배와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선배는 후배들이 왜 이럴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속마음을 터놓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후배가 선배를 인터뷰하는 걸 불편해했는데, 하길 잘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오가며 인사도 나눌 수 있겠죠. 학교 밖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도 좋지만, 더 작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가 심한데, 행사를 열고 얼굴을 익히면 민원이 현저히 줄어든대요. 얼굴을 모르는 사이라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위아래에 누가 사는지 알면 더 조심하게 되고 미안함도 갖게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면서 친분이 쌓이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를 보며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인터뷰가 좋았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몸소 깨달았으니 좀 더 넓은 마을로 나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겠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요즘 학생들은 저보다 더 바쁘거든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야 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수행평가나 시험 기간에는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하고요. 방학 때도 각자 학원 일정이 있으니 시간 맞춰서 취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줄 몰랐던 거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좀 더 부드럽게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용기 낸 학생들이 의기소침해지진 않았을지, 걱정도 했어요.

무엇보다 점점 나 혼자 사는 시대로 변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과 전화하거나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주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건 당연시되었고요. 그러나 아직 서로에게 완벽하게 담을 쌓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동네 형태가 달라지며 방법이 변했을 뿐이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웃사촌은 참 따뜻한 문화라는 걸 느끼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hello





현지윤 강사 영상촬영·편집 담당

이번에 이산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미디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번 수업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며, 학생들과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호기심과 수업 참여 정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수업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수업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업 내내 다양한 미디어 자료와 예시를 활용하여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습하는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미디어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관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는 서로 어색한 감이 있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생들과의 신뢰와 소통이 높아져 갔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미디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웃들과 소통을 직접 시도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정서적인 연결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디어로 담아내는 경험이 학생들의 인문학적인 시각의 확장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이산중·고등학교 미디어 수업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참여, 창의성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증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은 물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볼 수 있어 큰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지현 강사 그림 그리기 담당

안녕하세요. 김지현 강사입니다

이번에 학생들과 디지털 페인트 강의는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살짝 걱정도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나 성인을 위주로 강의하다가 요즘 중·고등학생의 성향이나 생각을 잘 모르다 보니 제 방식에 수업이 재미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었고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이나 처음 해보는 학생이나 모두가 디지털 페인팅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재미있어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도 요즘 학생들은 정말 금방금방 배운다는 부분에 속으로 놀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오래 배우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좋았던 점은 다른 학년과 같이 하다 보니 선후배 외에 교류도 되고 서로 협동이 된다는 모습에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과정 동안 열심히 해주었고 그로 인해 잘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일정으로 인해 책자에 실을 그림은 다음에 이어서 그리기로 하였지만 잘 완성되었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수업하게 된다면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가 곧 마무리되는데 선생님 학생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Chapter 3.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과 이웃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과 이웃

마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늘 같은 곳을 보면 비슷해 보이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매일 달라지는 마을에서 산다. 마을은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공간이다. 옛날에는 한동네에서 뛰어놀고 서로 집에 드나들며 속속들이 알고 지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밤에 누가 아프진 않았는지, 동네 어르신 생신이면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눴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정겨웠다.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서 사촌 형제와 다를 바가 없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이 이해되던 시대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는 높은 담이 생겼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졌고, 신도시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생활하면서 산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바쁜 삶을 사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었다.

세상이 변했지만, 우리 곁에 이웃은 있다. 우리는 여전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시기를 어떻게 보냈나요. 잘 지내셨나요?”

「이웃, 안부를 묻다」는 아이들이 인터뷰 기사 작성, 영상편집, 스케치를 배워서 직접 지역사회에 들어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웃 안부를 묻는 일, 쉽지만은 않았다. 이웃에게 다가가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했다. 한 걸음이 참 어려웠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한 걸음, 두 걸음 이웃에게 다가갔고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이란?

공동체가 함께 가꿔가며 사는 동네 /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아늑한 동네 /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 서로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씩 놓는지도 알고 소통하는 곳 / 서로서로 옆집, 윗집,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모여 의지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하호호하는 것? /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 내가 사는 동네 / 사람들이 조화로운 마을 /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 / 사람 사는 곳 / 한 집단이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것

이웃이 뭘까?

함께 도우며 사는 동네 친구 / 안부를 묻는 사람 /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
오가며 눈인사하는 사람들 / 가까이 있는 사람들 / 서로 돕고 옆집에 사는 사람 / 나
랑 가까이 사는 사람 / 옆집에 사는 사람 / 멀고 가까운 사람들 /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 / 내 주변에 사는 사람 / 근처에 사는 사람 / 우리 동네 사람

우리가 꿈꾸는 마을은

한강 앞 / 숲속 마을 / 사람 많은 시골 / 언덕 위 마을 / 공주 성들이 모여 있는 마을
/ 돈 많고 평균 나이가 낮고 깔끔한 마을 / 부자 동네 or 깡촌 / 친절한 사람이 많은
마을 /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 / 바다가 가까운 마을 / 안전하고 청결하며 부족함이
없는 마을 / 배산임수가 갖춰진 마을 / 담배꽁초가 없는 마을

안부를 물을 때 건네고 싶은 말 한마디

잘 지내셨나요?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잘 지내셨어요? / 어떻게 지내셨
나요? /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 요즘에 살기 편하십니까? / 오늘 하루도 행복하
신가요? / 오늘 제일 행복한 일은 무엇인가요? / 요즘 어떠세요?





어떤 이웃을 만나볼까

1팀 (이산중학교)

팀원 : 이윤아, 이윤서, 최윤진, 박세준

결과집 예상 독자 : 화성시민

인터뷰 대상 : 사업가, 초·중·고 선생님(청계초, 이산중, 국제고), 경찰관, 소방관, 군인, 박세준 할머니

2팀 (이산중학교)

팀원 : 안태강(피디), 이나예(사진과 그림), 임나현(그림), 조용준, 안보현(글)

결과집 기획 의도 : 신도시 개발 이전, 동탄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 신도시 이전의 동탄 모습과 풍경을 기록하고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다.

결과집 예상 독자 : 동탄 신도시 이전의 모습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인터뷰 대상 : 장지동 마을회관 주민

취재 일정 : 여름방학 중

형식 : 주된 이야기는 글과 그림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진으로 보충한다.

담고 싶은 내용 : 살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던 동탄의 모습과 누군가 기억하는 동탄 이야기, 인터뷰 대상자 삶의 이야기, 동탄의 몰랐던 과거 모습

3팀 (이산고등학교)

팀원 : 송유현(영상, 편집), 강태현(영상, 편집), 정지영(글), 안재윤(기획, 인터뷰), 강다경(기획, 인터뷰), 임지환(그림)

제목 : 당신의 세대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세대에게 안부를 묻다.

결과집 기획 의도 :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듣기, 동네 기록 저장, 서로에 대한 관심을 두고 다양한 삶을 엿보기 위해 이웃을 인터뷰하고 책을 제작한다.

동탄 신도시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 지역 공동체의 느낌이 약하다. 서로 관심을 두고 이웃끼리의 정이라는 감정을 키우기 위해 인터뷰를 해본다.

인터뷰 대상 :

실버세대 - 신도J마트, 경로당, 노노카페

베이비붐세대 - 만의사 스님, 장지동, 경로당

X세대 - 경찰관, 킥보드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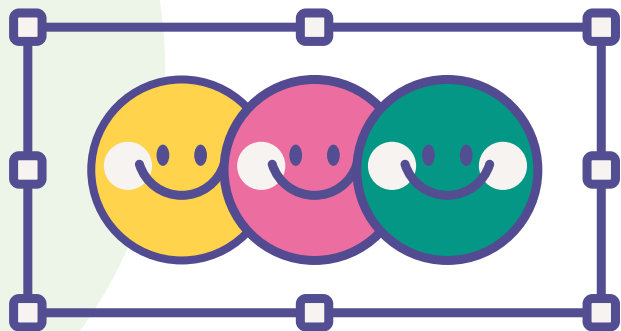
MZ세대(Y, Z) - 또래 친구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도윤

알파세대 - 동탄초등학교 학생(100주년)

그 외 - 동탄이 고향인 사람, 당근 온도 99, 음악가 이진웅

세대별 유행, 노래, 인싸템 취재

공통 질문 선정 : 동탄은 000이다. 이웃은 000이다.





Chapter 4.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나요?

우리끼리 인터뷰를 해보았다.

중학생은 1학년과 2학년이 짝이 되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잘 모르는 사이에 대화하려니 어색하고

무섭기까지 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짝을 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평소에 후배는 선배가 어렵고, 선배는 후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화해보니 1학년들이 참 착해요!”

“선배님들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재밌어요.”

고등학생의 경우, 2학년끼리 팀을 짜서 모였기 때문에

성별을 가르는 방식으로 짝을 정했다. 평소에 잘 아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질문 목록을 작성하려니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인터뷰를 해 보니 재미있어요. 시민 인터뷰가 기대되는데요?”

“친구와 연습해 보니까 질문을 잘 생각해서 인터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면서 예상보다 길게 인터뷰를 이어갔다.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대답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야 하는지도 경험해 봤다. 동탄에서 만난 친구의 고향은 어디였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등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 계속 답을 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20여 분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다.

학교 후배와 같은 단지에 산다는 것도,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되었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도 오늘과 비슷한 생각이 들 거야.

겉보기엔 낯설지만, 만나보면 처음 든 생각과 다를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조금씩 알게 되었다.



EW
EW

이산중학교

...



이윤아가 조용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윤아: 몇 학년 몇 반인가요?

조용준: 이산중학교 2학년 5반입니다.

이윤아: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조용준: 게임(브롤/FIFA)에서 보스를 깬 때

이윤아: 자신이 했던 가장 도전 중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조용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에게 고백한 일

이윤아: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조용준: 레볼루션 하트 <장산범>

이윤아: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용준: 불(어떨 땐 타오르다가 갑자기 꺼짐)

조용준이 이윤아에게 물었습니다.

조용준: 출생지는?

이윤아: 서울아산병원(하남)

조용준: 좋아하는 과목은?

이윤아: 체육

조용준: 싫어하는 과목은?

이윤아: 수학, 과학

조용준: 좋아하는 연예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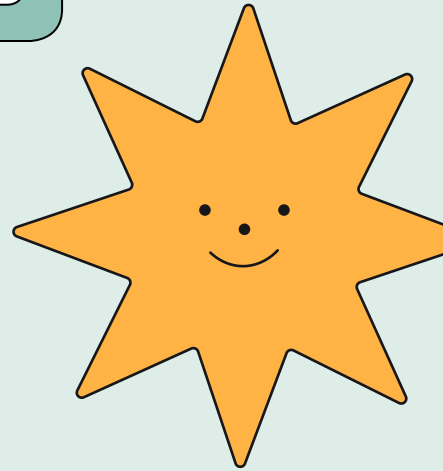
이윤아: 투바투

조용준: 하고 싶은 일은?

이윤아: 콘서트가기

조용준: 취미는?

이윤아: 그림그리기





박세준이 안보현에게 들었습니다.

박세준: 고향이 어디인가요?

안보현: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박세준: 꿈이 무엇인가요?

안보현: 유학과 물리치료를 생각 중입니다.

박세준: 코로나19로 인해 무엇이 가장 변한 것 같나요?

안보현: 다른 꿈을 접게 되었어요.

박세준: 학교생활이 재미있나요?

안보현: 시험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박세준: 좋은 이웃은 무엇인가요?

안보현: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이웃이요.

안보현이 박세준에게 들었습니다.

안보현: 이름, 생일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박세준: 1학년 5반 박세준입니다. 2010년 8월 25일생이고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안보현: 중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마음이 어떠세요?

박세준: 초등학교보다 학업이 어렵고 조금 더 재밌어 오기 싫었어요.

안보현: 미래 목표나 꿈은 무엇인가요?

박세준: 사업가(전자기기 관련), 전교 1등

안보현: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점이 있나요?

박세준: 책을 출판해 보고 싶어요. 부모님께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안보현: 앞으로 어떤 학교생활을 기대하나요?

박세준: 앞으로 학습할 것.

안보현: 본인의 특징, 장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박세준: 친화력이 좋고, 운동을 잘합니다.

안태강이 이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안태강: 코로나19 때 무엇을 하며 지냈나요?

이윤서: 온라인 줌 수업을 하며 지냈어요.

안태강: 동탄에 오게 된 이유는?

이윤서: 그냥 여기가 제일 낫다고 해서요.

안태강: 성격은 어때요? 관심사는요?

이윤서: 조용한 편이고 친구 사귀기에 관심이 있어요.

안태강: 학교의 나와 집에서 나의 차이점은?

이윤서: 학교의 나는 조용하지만, 집에서는 시끄러워요.

안태강: 새로 생긴 과목?

이윤서: 은근히 만족해요.

안태강: MBTI는?

이윤서: INFP

이윤서가 안태강에게 물었습니다.

이윤서: 1학년 때 몇 반이었나요?

안태강: 1학년 3반이었습니다.

이윤서: 1학년과 2학년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태강: 시험이 생겼어요. 뒷목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윤서: 이산중학교는 몇 지망으로 선택했나요?

안태강: 1지망이요.

이윤서: 2학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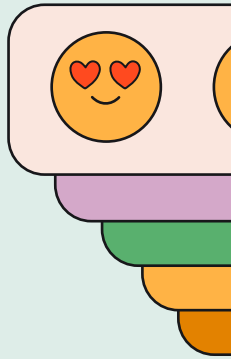
안태강: 딱히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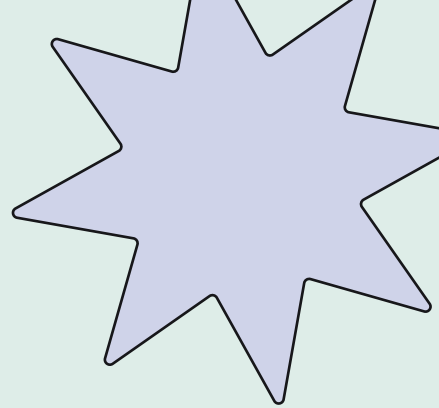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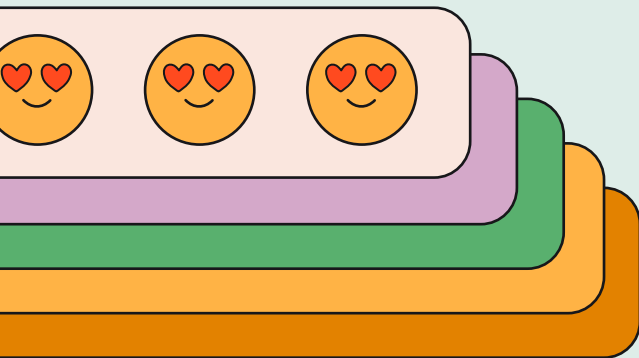
이윤서: 반에서 자신은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나요?

안태강: 시끄러운 사람.

이윤서: MBTI는?

안태강: ENFP





이나예가 최윤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나예: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최윤진: 이름은 최윤진이고, 2010년 11월 3일에 동탄에서 태어났어요. 병설 유치원, 청계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청계중학교에 떨어져서 이산중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MBTI는 ESTP. 마라탕을 좋아하고 엔믹스도 좋아해요.

이나예: 가장 친한 친구는?

최윤진: 작년엔 있었는데, 반이 혼자 떨어졌어요. 우리 반에 아는 친구가 없어요.

이나예: 동탄으로 오게 된 계기는?

최윤진: 저는 동탄에서 태어났어요.

이나예: 지금 반이 마음에 드나요?

최윤진: 반이 시끄럽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서 별로예요. 담임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에요.

이나예: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최윤진: 평소 PD에 관심이 많아 수업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최윤진이 이나예에게 물었습니다.

최윤진: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이나예: 저는 2009년 3월 25일에 용인에서 태어났어요. 뽀롱뽀롱 어린이집, 선행초등학교와 동탄초등학교에 다녔고 지금은 이산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최윤진: 코로나19 때 어떻게 공부했나요?

이나예: 안했어요. 놀았어요.

최윤진: 동탄에 산 지 얼마나 되었나요?

이나예: 2019년 후반에 이사 와서 4년쯤 되었네요.

최윤진: 형제자매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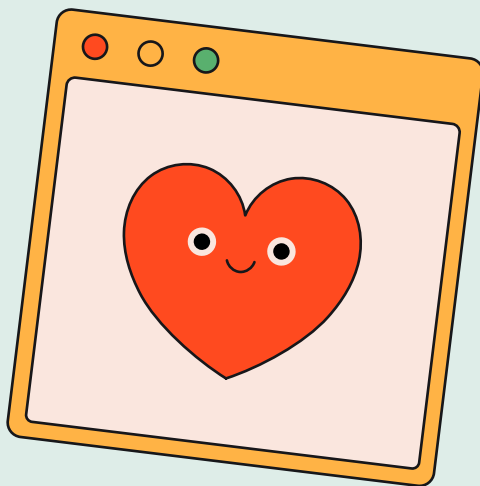
이나예: 남동생 1명 있어요.

최윤진: 동탄에 살며 겪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나예: 고라니를 본 일

최윤진: 이산 중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이나예: 명심보감이 있다는 거요.





이산고등학교

...



송유현이 안재윤에게 물었습니다.

송유현: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안재윤: 나는 이산고2학년 안재윤이야. 부산에서 태어나서 바로 수원으로 이사 왔어. 2017년에 동탄초등학교로 전학왔고, 이산중을 졸업했어.

송유현: 너의 이상형은?

안재윤: 키 175~180cm, 얼굴은 총명한 바보상에 귀여워야 함.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반갑슬머리였으면 좋겠어. 길에서 내가 잘생겼다고 가리키는 사람을 보고 친구들이 느끼하다고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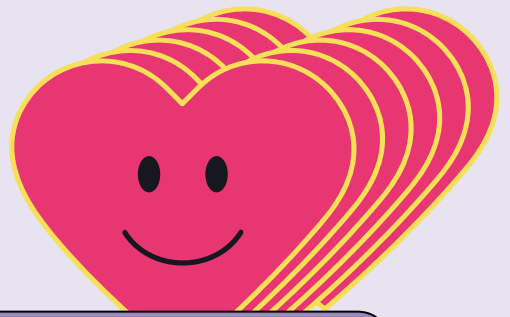
송유현: 동생과의 관계는 어때?

안재윤: Not bad. 동생을 필요할 때만 찾는 편인데, 주로 야식 먹을 때. 어렸을 때는 동생과 많이 싸웠어. 말을 안 듣거나 꿀 보기 싫었을 때는 예를 들어, 엄마 앞에서 혼자 예뻐 받으려고 할 때야. 맛있는 음식을 같이 안 먹고 혼자 다 먹을 때 많이 싸우지. 그런데 동생과 오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긴 할 것 같아.

송유현: 기억나는 초등학교 동창은?

안재윤: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을 안 듣는 아이 2명이 있었어. 급식 차를 계단에서 밀고 드럼 채에 불을 붙이기도 했어. 담임선생님이 임신 중이었는데, 많이 놀라셨지. 내가 동탄으로 이사 간다니까 자기도 동탄에 간다고 해서 놀랐어.





안재윤이 송유현에게 물었습니다.

안재윤: 언제부터 시력이 나빠졌나요?

송유현: 7살 때 난시 진단을 받았어. 유전이라. 렌즈를 끼는 있는데, 비싸다고 해서 안경을 끼고 다녀. 최근에 근시도 생겼다고 해.

안재윤: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여자다!” 기준으로)

송유현: 1년 전에 뒷번호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 그녀는 괜찮았어. (예쁘다는 의미) 우리는 많이 친해졌지. 연락(전화도)을 많이 했는데……. 말하면 슬퍼지는 이야기가 있어.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당일 파투를 낸 거야. 나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말이야. 화도 못 내고 거리를 뒀어. 그녀도 날 좋아하는 걸 알고 멀리했어. 거의 남남처럼 지나다가 내 생일날이 되었는데, 그녀가 축하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빠진 척을 했지. (그런데 남남인 상태) 그녀가 생일 축하 그림톡을 만들어서 내게 줬어. 뽀빠로 데이날 내가 뽀빠로를 선물했더니 놀라더라. 그녀도 내게 뽀빠로를 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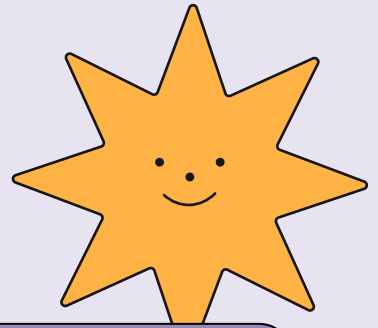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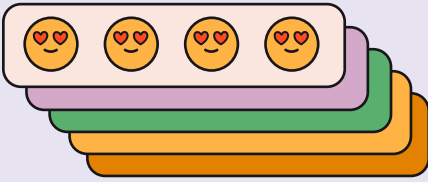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고 다시 거리가 멀어졌어. 방학이 되니 반쯤 포기 했어. 그런데 그녀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대. 개학하고 조금 뒤에 헤어졌어. 나는 완전 포기 상태였어. 수학여행에 가서 같이 놀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자퇴했어. 호주로 갈 예정이라. 이제 영원히 못 보게 되었어.

안재윤: 초등학교 때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송유현: 레고, 닌자고, 핸드폰, 전동휠, 왕딱지, 힐리스, 불량식품 큐티, 떡꼬치

안재윤: 2학년 7반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나요?

송유현: 나는 7반 그 자체라, 이름을 7반으로 개명할 예정이야. 내가 완벽해서 우리 반에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강태현이 강다경에게 물었습니다.

강태현: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강다경: 이산고 2학년 강다경입니다. 저는 기획과 영상 보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진로를 향해 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태현: 어쩌다가 이산고에 오게 되었나요?

강다경: 나루고, 반송고, 이산고 중 한 곳을 가고 싶었어요. 내신을 잘 받고 싶어서 왔는데 후회 중이에요. 이산고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성적을 잘 받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 갔더라도 불행했겠죠.

강태현: 이산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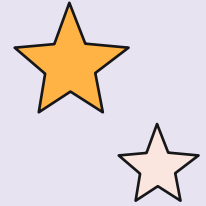
강다경: 학교 내 좋은 시설과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관심거리가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학교에 컴퓨터, 인터넷, 자판기 등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특히 교내 자판기는 동탄에서 이산고가 최초래요.

강태현: 본인의 진로 방향을 말해주세요.

강다경: 기획,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진로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영상 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문화콘텐츠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강태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강다경: 돈이 많은 백수로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행복하잖아요.



강다경이 강태현에게 물었습니다.

강다경: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강태현: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서 2017년도에 경기도로 왔고, 별일 없이 지내다가 올해부터 진로를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경: 장래 희망은?

강태현: 영상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가능하면 영상을 찍는 감독이랑 촬영까지 직접 해보고 싶어요.

강다경: 카메라, 영상 촬영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강태현: 이사하면서 가전제품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가전제품을 사고 싶어서 진로와 연관되게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진짜 진로와 맞는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어요.

강다경: 코로나19 때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냈나요?

강태현: 게임하고 영상 녹화해서 편집하거나 친구들과 놀았어요.

강다경: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강태현: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만든 작품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Chapter 5.

이산중학교가
바라본 이웃,
안부를 묻다

첫 번째 이웃

세종공인중개사사무소 박혜련 님

인터뷰 진행_이운서, 이윤아, 최윤진, 박세준

오늘은 처음으로 인터뷰하러 가는 날이다.

원래는 김민지 선생님과 함께 가기로 했었지만, 선생님이 바쁘셔서 우리끼리 갔다. 오늘 인터뷰 가는 곳은 차영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장소였다. 처음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만났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 조금 편해졌다. 장비를 세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대표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다.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탄8동에 사는 세종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박혜련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하면 집, 상가 등 부동산 관련해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를 중개해요. 임대를 놓는 사람, 집을 구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공인중개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부동산 가격이 다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조심스럽고 공부할 부분이 많아요. 그만큼 일을 해낼수록 좀 더 자부심도 생기고 성취감도 상당히 높아요. 또 다른 직장보다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일이 내 마음처럼 잘 안될 때도 있어요. 일이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말고도 하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동탄8동 주민자치회와 장지동 통장을 맡아서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요. 저는 주민자치회 자치공동체 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사용하거든요.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에서는 다양한 행정 알림 사항을 주민들이 다 잘 알 수 있게끔 전달하거나 마을에 무슨 민원 문제가 있으면 동에 전달하는 등 마을과 주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요.

2023년 9월 16일에 동탄8동 장지반디축제를 했어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고 반디마켓도 열었어요. 반디마켓에는 아나바다 장터와 플리마켓이 있었는데, 주민 참여자를 미리 모집했어요. 예전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장지천 사생대회를 했었어요.

2023년 봄에 새 둥지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어린이들이 직접 새둥지를 만들고 나무 위에 달았어요. 새 둥지를 트는 모습까지 관찰했죠.

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차고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동탄8동 장지반디축제를 했는데, 생태 축제였거든요. 동탄8동 안에는 장지리 원마을과 신도시가 함께 있어요. 원주민분들이 장지천과 장지 저수지에 반딧불이가 살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아지고 소음도 늘어나면서 반딧불이가 많이 없어졌죠. 옛날을 조금 되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생태 마을을 만들자는 의미로 장지반디축제를 하게 된 거예요. 생태축제 안에 체험 부스와 반디마켓이라는 마을 장터도 넣었어요. 공연팀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동탄8동 주민자치센터 우쿠렐레 공연단, SKY서연고 밴드부, 장지하나 어린이집 어린이 합창단, 화성시 청년예술단 보컬팀, K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 등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축제를 진행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만난 가장 기억에 남는 주민이 있나요?

굳이 뽑자면 '8동.이.네'라는 단체에 이향정 대표님이 떠오르네요. 그분이 동탄8동 주민자치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마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분의 열정이 대단하고 또 공모 사업도 많이 해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거든요.

혹시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이웃과 잘 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탄이 신도시잖아요. 주민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분들이예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죠.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같은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활동하면 이웃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활동이나 목표가 있나요?

저는 계속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웃

에센츠책방카페 정은경 님

인터뷰 진행_이운서, 이윤아, 최윤진, 박세준

10월 12일, 오늘은 친구들과 에센츠책방카페 인터뷰를 가는 날이다. 세종공인중개사 사무소 박혜련 님 인터뷰에는 4명만 갔지만, 이번에는 김민지 선생님, 차영선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러 갔다. 에센츠책방카페는 아이들 모두 방문하고 싶어 했던 장소였다. 윤아와 세준이가 인터뷰를 하고 윤진이와 윤서는 스태프로 참여했다. 촬영 장비를 들고 학교에서 22분 정도 걸리는 에센츠책방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해서 잠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보낸 후 인터뷰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탄에서 에센츠책방카페를 운영하는 대표 정은경이라고 해요. 두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사업가이고 프로 독서러입니다.

책방을 차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책을 매개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책을 읽으며 성장할 수 있고 또 내 마음과 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이나 도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막연하게 서점 사장님이 되고 싶다거나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나 진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책방에선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책을 판매하는 건 물론이고, 책을 직접 쓴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은 북토크를 기획하고 준비하기도 해요. 책을 읽고 독자들이 이야기 나누는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의 책을 정해서 좋았던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질



문지를 뽑아 답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아니면 다양한 책을 가지고 와서 좋은 점을 나누기도 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분에 질문이 생겼고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책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죠.

독서 모임 이름을 ‘지구별 공간’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공간은 나의 지식과 재산,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이죠. 창고에 쌓인 곡식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 곡식이 썩게 되잖아요. 내 지식과 재산, 감동을 나누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정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동탄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고,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며 독서하고, 수제 종이를 만들기도 해요. 나의 공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책방과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무래도 홍보에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에센 츠책방카페에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람을 느끼죠.

가장 뿌듯하고 기뻐던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은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 어떤 계획을 할지 등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거든요. 현재 전공을 살린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뿌듯하고 재미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달란트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감동을 느껴요. 카페에 온 분들이 뿌듯해하는 모습 볼 때 가장 기쁘고 설레요.

가장 좋아하는 책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배현철 작가의 《승화》를 좋아해요. 부제목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예요.

어제와 달라진 오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조금 달라졌음을 점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중의 하나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흔들릴 때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요. 어떤 구절을 읽어도 공감되는 책이에요.

새로 만난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주로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취향이나 관심사를 얘기하다 보면 마음을 열게 되죠.

특히 저는 아로마테라피, 컬러테라피를 함께하는데, 힐링 도구로 타인의 마음을 좀 보듬는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나요.

저는 글을 조금 쓰고 싶어요. 저도 나만의 에센츠를 쏟아 낼 수 있는 글을 집중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세 번째 이웃

신도J마트 박인석 님

인터뷰 진행_안보현, 안태강, 이나예, 임나현, 조용준



동탄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 온 65세 박인석 사장님을 뵙고, 이웃과 동탄에 관한 질문을 했다. 감사하게도 인터뷰에 친절하게 응해주셨다. 박인석 사장님이 동탄에 거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안녕하세요,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설비 일을 하고, 겸업으로 유통판매업 마트를 하고 있어요.

유통판매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식품, 마트 쪽 유통 일을 해요. 마트는 종합적으로 식품, 주류, 음료 쪽을 유통하는 곳이 고요. 이 일을 한 지는 한 40년 정도 됐죠. 아, 동탄에서는 2008년에 시작해서 한 18년 정도 했어요. (웃음)

오래 일을 하셨던 만큼, 마트 일을 하면서 특별히 든 생각이 있을까요?

젊었을 땐 일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일을 하다 보니 나름 성장도 하고 직업에 대한 애착도 생기더라고요. (웃음)



동탄은 어떤 동네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동탄이 신도시니까 일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왔어요. 이사 와서 보니까 신도시는 다른 동네하고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동탄은 안전하고 편리한 동네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 장사가 많이 안 되진 않아요. 신도시라 주변에 대형 마트가 있는데도 동네 마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하죠.

요즘은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기보다는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통 쪽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한 손님이 물건에 사 갔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온 적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셨어요.

제가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다 보니 손님과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혹시 소개해 주고 싶은 이웃이 있나요?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단골이 생겨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골을 매일 만나게 돼요. 저는 가게에 오는 모든 단골을 다 소개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 년을 유통업으로만 먹고살다 보니 가게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단골손님 덕분에 지금까지 장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게 단골을 모두 소개하고 싶어요.

사장님께 이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가 젊을 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호회도 많이 다녔는데, 나이 들고 보니 가족 품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웃이 중요하죠.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편한 관계로 지내는 이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 이웃이 되고 싶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는 삶에 만족하세요?

제 적성에는 잘 맞는데, 집사람은 너무 힘들겠쥬. 본인에게 잘 맞고 돈도 잘 버는 직업이 제일 좋은 건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데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예요. 나는 유통 일이 적성에 맞아서 계속하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긴 어렵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적성을 천천히 잘 찾아보길 바라요.

네 번째 이웃

이산중학교 국어 담당 김민주 님

인터뷰 진행_안보현, 안태강, 이나예, 임나현, 조용준

동탄신도시는 좋은 교육 환경으로 유명하다. 많은 사람이 동탄의 장점으로 ‘교육’을 언급했다. 우리는 이산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만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매일 아이들과 만나고 부대끼다 보니, 거창한 에피소드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일로 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는데 즐겁게 참여할 때, 제가 읽은 책을 소개했을 때 읽어봤다며 이야기를 하는 학생, 아파서 결석한 친구가 학교에 왔을 때 괜 찮은지 물어본 학생과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편지를 쓰는 학생 등을 보면 흐뭇하죠. 국어 과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과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필 평가 점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아요.

동탄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탄은 다른 지역보다 아이들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동네는 출산율 감소로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는데 동탄은 과밀학급이고, 학원가나 동네에서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동탄만 보면 우리나라가 출산율 감소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인지 동탄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예요. 유해시설도 거의 없고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공원, 야트막한 산, 오산천, 호수 등이 있어서 편하게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좋아요. 가족 중심 문화가 잘 자리가 잡혀서 주말 저녁에 맥줏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자연스러운 동네예요.



주변에 친한 이웃이 계실까요?

저는 동탄에 산지 15년 차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알게 된 이웃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3년 전에 근무지를 동탄으로 옮겼어요. 학교 동료 교사이면서 같은 동네 주민인 선생님들이 동탄에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 정보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웃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탄에 살면서 이웃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워킹맘이잖아요. 이웃의 도움이 만약에 없었다면 제 아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어떤 위급한 순간이나 당황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상황을 잘 넘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잘 넘겼어요. 누구나 혼자 혹은 가족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 또한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웃이나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나요?

특별한 이웃을 만나고 싶다거나 특별한 이웃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삶을 잘 꾸려 나가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웃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이웃

이산중학교 2학년 김도윤 학생

인터뷰 진행_안보현, 안태강, 이나예, 임나현, 조용준

우리는 이웃과 우리가 사는 동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을 인터뷰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여러 시선에서 생각을 들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 대상자는 이산중학교 2학년 김도윤 학생이었다. 동탄에 산 지 5년 차이고, 취미로 암벽 등반을 한다.

암벽 등반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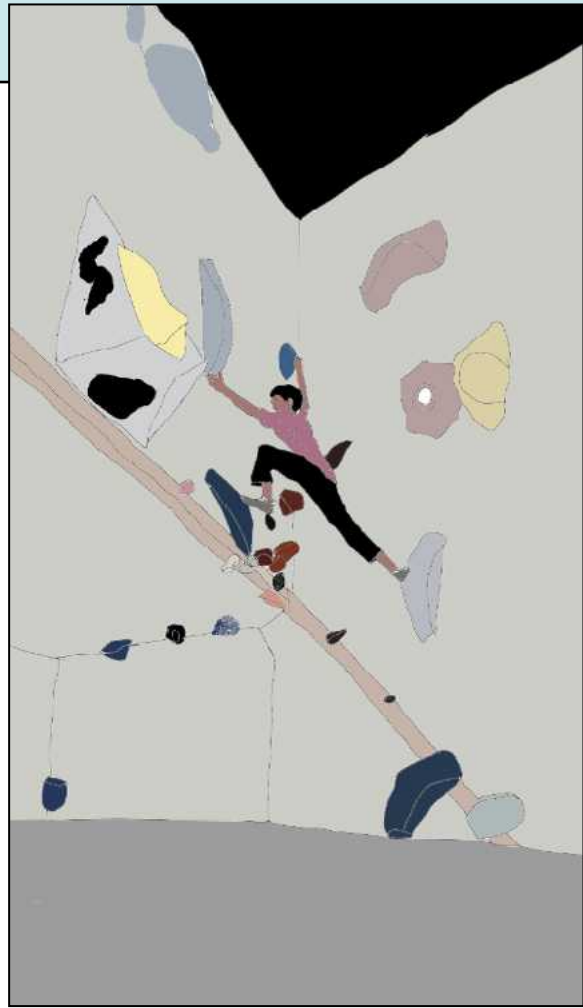
제가 하는 암벽 등반을 정확히 말하자면, 인공 암벽에서 플라스틱을 잡아 올라가는 스포츠입니다. 확실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 집 근처에 암벽장이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취미 생활하기 좋은 동네에서 취미를 즐기며 산다는 게 장점이지요. 화성시에 암벽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화성시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암벽 등반을 시작했을 때 풀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촬영 영상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동탄의 장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동네는 확실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공부할 때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죠.

또, 교통이 편리한 동네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곳에 동탄역이 있고 버스로도 여기저기 다니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버스를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주위에 친숙한 이웃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아저씨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 뒤로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어떤 이웃이 되고 싶나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이웃이 되고 싶어요.

이웃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자신 또한 불편해질 것 같아요.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 이웃

창업교육전문가 유현경

글-김민지 선생님

인터뷰 진행-안보현, 임나현, 안태강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창업교육전문가 유현경 대표를 만나다.

동탄은 젊은 도시다. 젊은 부부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은 동탄 신도시, 매우 깨끗하고 화려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파트숲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가 뻥뻥하게 들어서 있고 비슷한 건물로 이루어진 블록형 거리가 이어져 있다. 우리 마을의 특색은 뭘까. 이웃과 이웃이 소통할 기회가 적고 서로 안부를 묻기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런 도시에서 나만의 삶을 펼쳐보고 싶을 때, 이웃과 소통할 방법이 고민될 때 만나보면 좋은 랫츠 챌린지 유현경 대표를 소개하려 한다.

유현경 대표는 5년 전, 챌린지 스쿨에서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선생님이로 처음 만났는데 학생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었던 분이다. 랫츠 챌린지는 창업교육을 하는 회사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인터뷰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많은 사람의 도전을 응원하는 챌린지 헬퍼, 랫츠 챌린지가 되기까지

유현경 대표는 창업학 박사이며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1년간 중·고등학교 물리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2월 명예퇴직을 하고 랫츠 챌린지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큰 도전을 앞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랫츠 챌린지'라고 회사명을 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본인을 사람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도전하는 사람, '챌린지 헬퍼'라고 소개했다.



무엇인가 남는 교육을 위해

유 대표는 예전 고등학교 물리 교사일 때 수능 강의를 많이 했었다. 물리 과목을 선택하는 한두 반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열성적으로 학생을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인기도 좋았다. 그런데 수능 전날 우연히 고3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과서와 문제집을 모조리 버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 쓰레기 차가 와서 학생들이 버린 교과서를 모두 싣고 가는 모습을 보고 동료 선생님들에게 물었다.

“학생들이 왜 책을 다 버릴까요?”

그런데 주변 선생님의 대답이 더 놀라웠다.

“안 버리면 뭐해요?”

누구에게는 충격 받을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유 대표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많은 과목이 수능을 기점으로 학생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식이 되어 버린다는 것, 이와 함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최선을 다한 자신의 노력도 시험과 함께 버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평생 남을 만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었던 유 대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찾아보던 중 학생주도성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으로 시작하여 그 주제를 적정기술, 디자인씽킹, 창업교육으로 확장시켰다. 창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무렵 창업은 책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21년간 근무하던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다. 창업을 하니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람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창업교육의 주제

유 대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청소년과 대학생 창업교육에 관심이 많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한 직장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경력을 전환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창업교육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중·장년 등 각 생애 주기별 맞춤형 창업교육과 진로 코칭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게다가 지속 가능한 발전 SDGs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SDGs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 안성시 죽산중학교에서 실시한 플리마켓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학교에서 주로 하는 '플리마켓'은 자신이 가진 물건을 '아나바다'로 판매하는 방식을 주로 적용하는데, 죽산중학교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싶다고 의뢰했다. 죽산중학교의 제안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교육을 했다. 4차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유기견을 돕기 위한 굿즈 제작, 다문화 학생과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벤트 하기, 발달장애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자 캐릭터를 만들어 핸드폰 그림 톡 제작 및 판매하기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플리마켓을 운영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플리마켓을 기획하면서 SDGs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플리마켓을 이용하는 지역 시민들에게 SDGs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소셜 벤처형 플리마켓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특색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렛츠 챌린지’에서는 자체 교재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거나 의뢰가 들어오면 기성 프로그램을 가져다 판매하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의뢰한 분과 협업하며 프로그램을 개별화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육 활동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다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한다. 렛츠 챌린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소셜 벤처형 회사이다.

명사형 꿈이 아니라 형용사형·동사형으로 꿈을 꾸자

유 대표는 진로 고민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꿀 때 ‘직업’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가 되겠다거나 선생님이 되겠다는 직업 설정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새롭게 생겨날지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사람들이 당장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직업을 목표로 하여 진로를 개척하기보다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등 폭넓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얼마 전 성적이 상위권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인터뷰 하였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의 질문에 “문제집을 조금 덜 풀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굉장히 신선한 대답이어서 이유를 물었다. 학생들은 당시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풀었던 많은 문제집이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소용없는 일 같다고 대답했다. 그 시간에 책을 좀 더 읽고 더 많은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지, 친구들과 운동을 했다면 키가 1cm라도 더 크지 않았을까 등의 말을 덧붙였다. 유 대표 역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아는 것을 반복하여 확인하는 공부,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선행보다는 본인 스스로 학습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일이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이 정신을 키울 수 있다. 중학생에게는 지금 당장 백 점을 맞기보다도 어떤 공부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말하는 주요 과목 공부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며 연구하는 능력,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린 서로 배우는 존재

인터뷰를 마치고 안보현 학생은 유 대표에게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교육에 대해 말했다.

“2022년 이산중학교 도덕 수업 시간에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를 경험했어요. 저희가 평소 하던 수업 방식과 달라서 좋았어요.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요. 지식을 단지 머리에 넣는 암기형이 아니라 직접 생각해보고 실행해본다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았거든요. 수행평가에서 수행이란 부분은 과정을 의미하는데, 수행도 암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수행을 측정해야 하는 수행평가가 지식 위주의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건 수행평가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안보현 학생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수행평가는 수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안보현 학생의 한 마디가 우리에게 ‘렛츠 챌린지’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생각한다.



Chapter 6.

이산고등학교가
바라본 이웃,
안부를 묻다

첫 번째 이웃

세모네모살롱카페 이상준 님

인터뷰 진행_강다경, 강태현, 안재운, 정지영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세모네모살롱카페(영천점), 세모네모로스터리카페(반송점)를 운영하는 이상준입니다.

대표님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2019년 중반에 세모네모살롱카페(영천점)를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3~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코로나19가 확산했어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죠.

만약 제가 회사에 다녔으면 재택근무를 해야 했지만,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큰 영향은 없었어요. 카페 홀을 이용 못 하니 배달 위주의 영업이 이루어졌어요. 카페 이용이 가능해진 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며 카페 배달을 이용하던 사람과 새로운 손님이 카페로 유입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점이나 심리적인 위축감은 없었어요.

코로나19 전후로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었나요?

코로나19 전에는 세모네모살롱카페(영천점)내 룸 형식의 별도 공간에 대한 말이 좀 나왔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했는데, 공간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게 부담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때만 해도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카페 공간을 이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심해지니 별도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이 많아졌어요. 저로서는 오히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반을 더 다지게 되었죠.



언제부터 카페를 열었고 그 계기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19년 4월 30일 세모네모살롱카페(영천점)를 열었어요.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고향이 부산인데 2015년에 취업하면서 동탄으로 오게 되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카페를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공간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야근을 많이 했고 회사에서 자다가 일하고, 집에 가도 4~6시간만 겨우 자고 출근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주 52시간 근무가 제도화되면서 오후 5시 반이 되면 퇴근했는데, 갑자기 일찍 퇴근 하니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근 1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취미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동탄에 회사가

많으니 공간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공간을 이용한 창업을 기획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니 자리 잡기 전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한데, 계획적으로 잡아가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를 접목해서 창업하게 된 거예요.

1호점, 2호점 카페의 이름에 다 세모네모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브랜드 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브랜딩을 해야 하는데 유명한 카페는 다 영어로 되어있고 우리는 그 뜻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어린이도 친숙하게 읽을 수 있고 로고 모양만 봐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쉽게 부르면서 어른이 봤을 때 모양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심볼. 그래서 세모네모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동탄은 아이들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들이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카페에 오세요. 제가 카페를 연 지 5년 차이니까, 카페를 연지 얼마 안 됐을 때 유모차에 타고 오던 아이들이 제법 컸잖아요. 이제는 제게 뛰어와서 쿠폰을 내밀면서 “삼촌, 저 이거 주세요. 엄마는 이거 주세요.”라고 말해요.

제가 세모네모살롱카페를 운영하면서 딱 한 번 문 닫은 날이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3년 만에 처음 매장이 문을 닫으니, 손님들이 카페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수소문한 거예요. 제가 아파서 문을 닫았다고 하니 한 손님이 저녁에 밥을 잘 먹어야 한다면 카페로 김치를 가져다주시며 건강해야 한다고 덕담해 주신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과 자영업에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은 9시에 출근 해서 보통 오후 6시에 퇴근하잖아요. 자영업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일하는 날도 있고 적게 일하는 날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정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카페에 식음료 공간과 모임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찾아오나요?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오는데 오전에는 아이를 등교시킨 어머님의 모임이 있고, 영어 회화 모임, 미술 클래스를 하는 분도 계세요.

정오~오후 1시 정도 되면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올 시간이라서 집에 돌아가시죠.

오후 2시~3시 사이엔 초등학생 영어 회화 소모임, 과외를 하기도 해요. 저녁 시간에는 중·고등학생 과외나 클래스, 회사 퇴근 시간 이후에 직장인끼리 하는 취미 등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세요.

동탄에 추억의 장소나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추억이 담긴 치동천과 걷기 좋은 선납지요. 저는 치동천을 좋아해요. 치동천은 제가 동탄 와서 만난 여자 친구와 사랑을 시작하고 이별을 통보받은 장소였어요. 사귀자고 한 장소도 치동천이고, “안녕, 잘살아!”라고 이별했던 곳도 치동천이거든요. 낮에 걸으면 사람들이 적당히 있고,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자주 가게 돼요.

동탄을 모르는 사람에게 동탄을 소개한다면?

동탄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도시이면서, 젊은 사람들의 생기가 넘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탄을 추천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의욕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마을에 생기가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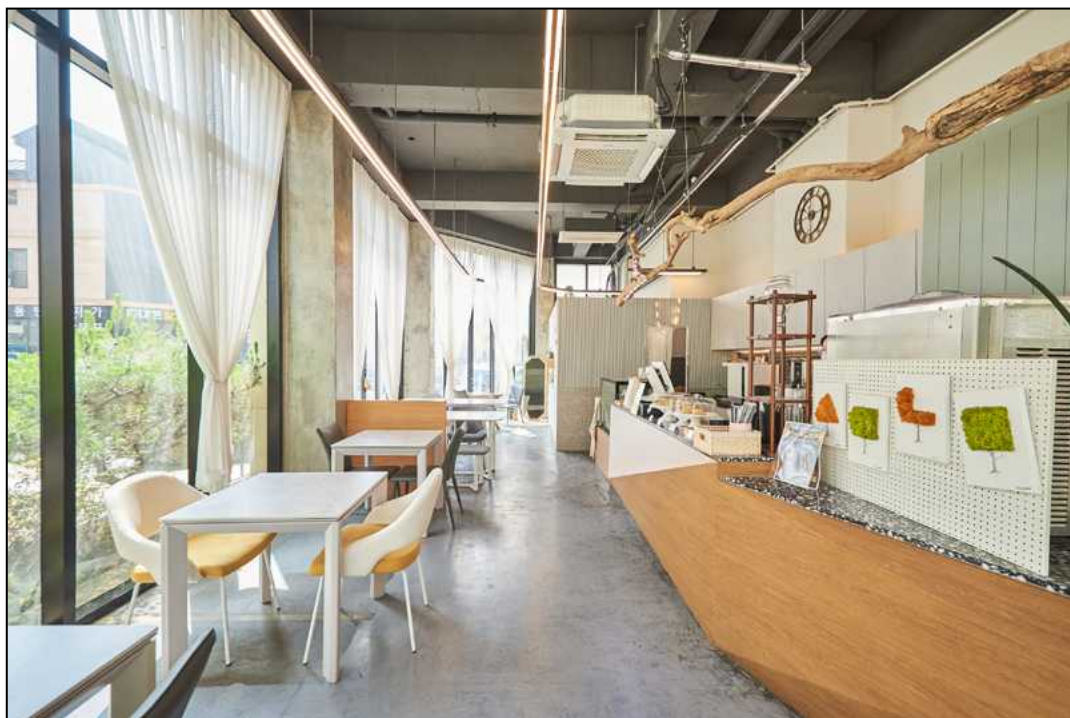
친구죠. 저도 타지에서 왔고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옆집과 큰 교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장하다 운영하면서 근처 매장 사장님이랑 친하게 관계를 맺다 보니 좋은 친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집과 가까운 이웃과는 교류가 없지만 카페 옆 꽃집 사장님과는 친해졌어요. 매번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오시고 저도 꽃 살 일 있으면 사러 가요. 때로는 오늘은 가게가 왜 조용한지, 장사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뭔지 신세 한탄도 하고.

건너편 편의점 사장님과도 자주 인사를 나눕니다. 이 동네에서 저희 카페와 편의점이 가장 먼저 문을 열거든요. 가게 앞을 청소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과거의 이웃과 지금의 이웃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옆집에 굳이 무언가를 먼저 베풀거나 기대하지 않는 점이에요. 저는 부산 주택가에 살았거든요. 동네에 열두 집 정도가 있었는데, 이웃집에 누가 살고 어떤 형제가 있는지 다 알았어요. 모두 집에서 함께 놀았으니, 부모님도 다 알았고, 사촌처럼 지냈어요. 저는 진짜 이웃이 친척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뭐랄까, 좀 선택적인 느낌이에요. 학부모님끼리 친한 경우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잖아요. 아이들의 친구니까, 그들의 어머니니까. 예전과 지금은 좀 다른 거죠. 그때는 굳이 자식들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하거나 곰탕을 끓이면 옆집과 나누어 먹기도 했거든요.



사장님이 어렸을 때 어떤 간식이나 놀이, 노래가 유행했나요?

어릴 때는 팽이, 민속놀이 팽이가 아닌 다른 팽이가 있었어요. 미니카를 가지고 놀기도 했어요. 중학생 정도일 때 유희왕 카드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도 나요.

간식은 피카츄 돈가스, 떡볶이를 먹었어요. 지금은 간식 하나만 사도 너무 비싼데 예전에는 1,000원이면 떡볶이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학교 마치고 학원가는 사이에 사 먹었어요. 삼각김밥은 제가 중학교 때쯤 나왔어요. 700원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힙합이 그때 유행했거든요. 다이나믹 듀오, 아웃사이더 등 힙합이 뜨던 시기였던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음악 방송을 본 건 군대에서 소녀시대 나왔을 때였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 연령층이 카페를 찾는데요.

사장님이 학창 시절 때는 주로 어디가 제일 북적북적했었나요?

놀이터요. 지금은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으면 단지 아이들만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파트에 안 살더라도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와서 놀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축구나 농구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사장님께 카페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학생 때는 학생이니 학교에 가고 수능을 봤으니 대학교에 갔어요. 군대는 가야 하니깐 군대에 갔다 와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취업했죠.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거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공간과 카페를 결합했고, 사업을 하면서 손님, 이웃이 생겼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지금도 너무 재미있어요. 카페는 지금 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웃

수학교습소 고유향 님

인터뷰 진행_강다경, 강태현, 안재윤, 정지영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 안재윤의 수학 선생님이었던 고유향입니다. 사교육 쪽에서 일한 건 15년 정도 되었고, 직접 교습소를 운영한 지는 5년 차예요.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제가 교습소를 운영하다 보니 학생과 거의 집에서 수업만 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요즘도 집에서 수업만 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늦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고3 입시 수업을 하고 추석 끝나서는 아기 낳을 준비를 하면서 지내려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공교육에 있었을 때와 사교육에 있었을 때가 좀 다른 거 같아요.

공교육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입시보다는 아이들의 인성, 학교 태도, 생활지도에 더 집중해서 교육했어요. 제가 20대에 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수준별 수업이 있어서 수학을 상·중·하로 레벨을 나눠서 수업했는데 저는 남학생 ‘하’반을 맡았어요. 하반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와서는 잤어요. 저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겠다는 열정이 엄청났기 때문에 학생들을 압박하며 큰 목소리로 수업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저희는 어차피 모르는데,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 학생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조금 무서웠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인성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국 그 학생이 무사히 졸업하는 것까지 봤어요. 사교육은 아무래도 성적과 입시위주라, 크게 말썽부리는 친구들은 오지 않아요. 학생들이 예뻐서 크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압박해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 고생을 하긴 해요. 진통제를 달고 살면서,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보다 제가 더 몸이 힘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현재 학생의 학창 시절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첫 번째로 예전에는 컴퓨터가 있긴 했지만 숙제나 리포트 쓸 때만 활용했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더 편했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은 아빠가 뉴스 보는 용이고, 이외의 시간에 잠깐 10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는 정도였어요. 콘텐츠도 딱히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저력이 없거나 집중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공부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전에는 CA 활동이나 동아리가 있긴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소위 반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입시공부에 집중했고 고등학교 때는 자정까지 야자를 하고, 방학 때는 특강이 있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지원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방학 동안 선행학습을 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시켰다기보다 외부 활동을 하는 흐름이 아니었죠.

요즘은 많이 선진화되고 보기 좋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인터뷰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아웃풋으로 나오잖아요. 이 경험을 토대로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스포츠 클럽이나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바쁘고 숙제도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학교생활이 나름 재미 있었는데 재미가 친구들과 쌓은 추억이지 학교에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활동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야자하고 방학 특강 했던 기억 밖에 없어서 아쉽죠.

예전에는 어떤 간식이나 노래, 놀이가 유행했나요?

저는 어릴 때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어서 놀이에 대해 말해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놀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초등학교 때는 전통 놀이로 배웠을 법한 땅

따먹기, 고무줄 놀이를 한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간식이 다양해졌지만, 예전에는 떡볶이나 떡꼬치뿐이었어요. HOT 노래,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노래를 좋아했구요. 일본 만화책을 좋아해서 시험이 끝나면 40권씩 쌓아놓고 침대에서 밤새 읽었어요. 과자를 먹으며 만화책 읽는 게 제게 엄청난 힐링 시간이었어요.

동탄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추억의 장소가 있나요?

제가 수원에 살다가 동탄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보니 화성시에 서 유명한 곳을 검색해서 다녔어요. 송산공룡알화석산지에 갈대밭이 예쁘거든요. 한 번 다녀왔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근처 동탄호수공원이나 여울공원도 자주 가고요. 동탄 끝, 오산 초입에 높은 전망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동탄이 다 보여서 좋았어요.

동탄은 아무래도 영유아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은 학급수가 12반이었던 게 4~5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탄은 정말 아이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눈 뜨면 학교가 들어서는 곳이에요. 젊고 생산적이고 가족 도시라고 봐요. 아이 키우기가 좋아서 추천해 주고 싶어요.

선생님에게 이웃이란?

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자잘한 것까지도 편하게 나누며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웃을 대할 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고, 배려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교습소를 하다 보니 집에서 나갈 일이 없어서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진 못해요. 그래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요. 이웃집과 같은 시기에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옆집이 임신한 줄도, 출산한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조금 씁쓸했어요. 바로 옆집인데 아기를 낳은 줄도 몰랐다니, 좀 미안했어요. 저도 아기를 낳고 당분간 쉴 예정이라 좀 더 친밀한 이웃 관계를 회복해 보고 싶어요.

세 번째 이웃

한화포레나동탄호수경로당 김세진 님

인터뷰 진행_강태현, 안재윤, 정지영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화포레나동탄호수경로당 회장 김세진입니다. 저는 1947년생이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6·25전쟁이 일어나 참 많이 고생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고, 경로당 회장을 하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방식의 경로당같이 운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경로당으로, 노인이 대우받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서 배우는 자세로 경로당을 운영해 왔어요. 치매 예방 교육, 노래교실, 요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미디어 강사님이 우리 마을에 살아서 경로당 회원들과 미디어 교육도 받았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경로당을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취미를 알 수 있을까요?

원래 글쓰기나 바둑, 장기를 했어요. 글 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도 내봤어요. 우리 경로당에는 노래가 있어요. 학교는 교가가 있는 것처럼 경로당 노래를 만든 거예요. 현재 대학교 3학년인 손녀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작곡한 곡으로 만들었어요.

경로당 회장님을 맡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공무원을 하다가 정년퇴직했어요. 그 이후엔 나이가 많아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쉬기보다는 경비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회사 경비 일을 하기도 했어요.



일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을까요?

2007년도에 취미로 풍물을 배웠어요. 10월이면 화성시체육대회를 하는데 풍물을 하거든요. 단원들과 출전하려면 25명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동마다 깃발도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그때 버스에서 동탄3동 깃발을 내려야 했는데 자기 장구, 팽과리, 징, 북 등 악기만 챙기고 무거운 깃발은 못 챙겼어요. 그 사이에 버스는 가버렸고요. 그래서 동탄면 깃발을 급하게 빌려서 '면'이라는 글자만 가리고 동탄만 보이게 해서 출전한 적이 있었어요.

동탄 8동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는 농악 팀이 없어서 더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몇 년간 고생스럽게 배웠는데 아깝죠.

풍물을 하면서 장구나 팽과리를 많이 쳤더니 귀가 상했는지 보청기를 낄 정도로 잘 안 들려요.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했어요. 코로나19가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 거죠. 집사람도 라면, 참치 등을 한꺼번에 사다 놔어요.

나는 봉사자라 나래울에 가서 시민들 줄 서는 거 돕고, 구호 물품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나중에 시장상까지 받았어요.

언제부터 동탄에 사셨나요?

2007년도에 동탄3동으로 이사 와서 바로 주민자치 위원을 했어요. 동탄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래 살 것이라고 소견을 제출해서 뽑혔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동탄 2신도시가 없었고, 동탄1~3동까지만 있었어요. 동탄면이었죠.

전에는 동네가 전부 산이었어요. 주변에 농사를 지었고요. 내가 오산에서 살 때 용인 신갈이나 분당 쪽으로 가려면 오솔길로 가야 했거든요. 전부 산이나 농사짓는 텐데 어느 날 작은 공장 같은 가건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번창했어요.

동탄2신도시 공사할 때 불도 안 켜있고 컴컴했거든요. 동탄1신도시만 화려했어요. 동탄2신도시로 이사 올 때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이사 가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도로가 뚝 뚫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동탄에 추억의 장소가 있으세요?

화성시에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한자를 가르쳐줬어요. 노인들에게도 가르쳤고요. 자기 이름 쓰는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모여 세대 간 교육을 한 적도 있어요. 나는 한자 중에 노인 노(老)를 강조해요. 늙을 노자로만 생각하는데, 익숙할 노라는 뜻도 있거든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없는 늙은 사람이 아니라, 경험 많은 익숙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 한번 봐주겠죠. 내가 동탄2신도시로 이사 오고 나서는 한자 수업 재능기부 할 사람을 못 구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면 감사료를 줘야 하거든요. 이사를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재능기부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동탄을 모르는 사람에게 동탄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동탄은 생동감이 있는 도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참 바쁘게 움직여요. 우리 아파트만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어르신에게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지나치기 마련이거든요. 동탄 호수공원에 가면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학생들 모두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이웃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에는 이웃이 보통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울리는 사이 같아요. 젊은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이뤄지는 사회가 아닐까요.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처음에 동탄에 왔을 때도 장구, 풍물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활동도 하고. 일단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복지관을 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울 거리가 많아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요. 경로당에도 젊은 사람이 올 수 있으니 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과거의 이웃과 지금의 이웃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은 사람 간에 왕래가 적어요. 옛날에는 이사 오면 떡이라도 나눠 먹었거든요. 요즘은 떡을 주면 싫어하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 걸 한 번 겪은 사람은 다시 이웃과 소통을 시도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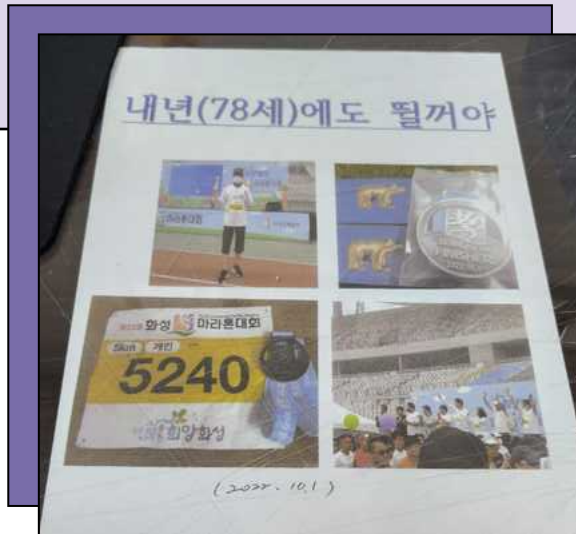
과거에는 누구를 부르면 대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웃을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대답 안하고 없는 척하고요. 이웃이 이웃답게 하려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은 터놓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네요. 옛날이 그리워요.

어렸을 때 어떤 간식이나 놀이가 유행했나요?

내가 어렸을 때는 제기차기, 비석치기, 구슬치기를 했고 여자들은 공기놀이, 고무줄뛰기, 줄넘기를 하고 놀았어요. 단옷날에는 그네뛰기, 정월대보름이나 추석에는 널뛰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민속촌이나 가야 구경할 정도죠. 그런데 구슬치기나 공기놀이는 아이들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을 많이 움직여줘야 뇌가 발달한대요.

우리는 어릴 때 간식이라고 찾아 먹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냥 주식이 되는 거였죠. 예를 들어, 감자를 먹었다고 하면 밥 대신 감자를 먹은 거예요. 예전엔 남자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여자는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남자를 우선시하고 여자를 낮췄잖아요. 남자는 공부를 시키려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시키는 바람에 머리가 좋아도 못하는 거예요. 떡을 주더라도 숨겨놨다가 아들에게만 몰래 줬어요.

국화모양으로 만들어진 국화빵도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눈썹사탕이라고 눈썹처럼 큰 사탕도



먹었어요. 그건 깨지지도 않고 입에 한 번 넣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알사탕이에요. 껌도 귀해서 지금 말하면 추접스럽고 더럽다고 할 테지만, 씹다가 기둥에 붙여 놓고 다음 날 먹었어요. 껌을 안 뽐기려고 씹으면서 자기도 했어요. 잠결에 껌을 뱉어서 머리카락에 붙으면 엄마가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일도 있었어요. 껌 색깔을 예쁘게 하려고 크레용을 집어넣어서 색깔내고 씹기도 했어요.

경로당에서 주로 뭐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보통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밥할 사람은 밥하고, 발에 물 줄사람은 물을 줘요. 요가 선생님이 오면 요가를 배우고, 댄스 선생님이 오면 댄스를 배우고 그런 거죠. 심심하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생활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천연 비누 만들기를 해서 강사님이 미리 재료를 가져다 뒀어요.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나눠 가질 거예요.

얼마 전에 명절을 이어가게끔 해주자는 취지로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말해서 송편빚기 행사를 진행했어요. 송편을 빚자고 하니, 처음에는 회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이 송편을 빚어서 집에 가져가면 엄마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품을 담아서 가져가게 하고, 어린이들이 손으로 만든 건, 경로당에서 찌서 같이 먹자고 제안했더니 다들 좋아했어요. 어린이들에게도 꿈을 실어줘야 해요. 아이들에게 송편을 조금씩 포장해 주려고 했는데, 할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득 담아 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즐기는 행사를 하니 기분이 참 좋았어요.

Chapter 1.

에필로그

이산중학교

안보현

솔직히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우리가 스스로 인터뷰하고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걱정됐다. 자발적인 활동이 우리의 평소 교육과는 달라 어색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았다. 우리는 스스로 인터뷰 대상자를 찾고 그 대상자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어 인터뷰를 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활동은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는 걱정뿐만이 아니라 긴장이 엄청나게 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눈을 봐야 하는데, 모두 장비나 질문지에만 집중했다. 다소 긴장한 티가 많이 났다. 하지만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안부를 묻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편안해졌다. 솔직히 인터뷰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의견과 생각을 묻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걱정만 가득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해 보니, 그저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인터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학생이나 성인, 또래가 될 수도 있다. 보통은 이웃이나 모르는 누군가를 인터뷰할 기회가 거의 없다. 학생들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기회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많은 학생이 해봤으면 한다. 학교 교과목 공부 또한 중요하지만, 학교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소통하는 방법,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끝까지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려고 마음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팀원 모두 평범한 중학교 2학년이지만 ‘도전’하려는 의지로 여러 사람과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팀원과 여러 번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자신이 먼저 하겠다고 의견을 내며 서로의 힘든 일을 나누어서 하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적

극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웃과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까이 사는데 서로에게 조금씩의 안부를 묻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인연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많이 차가워졌다. 인터뷰하면서 이웃이 그저 남으로 인식되어 간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나도 어렸을 때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며 살았던 것 같다. 동탄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러지 못하고 지냈다. 이웃과 만났을 때 인사해야 할지 머뭇거릴 때도 많았다.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이웃 간의 교류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웃을 인터뷰하면서 이웃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예전에 이웃과 함께 생활했던 때가 그리워진다. 나부터 이웃을 보면 안부를 묻고 인사를 건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꼈다는 부분은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은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짧은 시간에 인사를 건네기가 불편하겠지만, 서로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어렵게 다가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에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2023년도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나예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부담감도 있었고,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러 외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이 프로젝트가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할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뷰 수업에서는 직접 질문지를 작성해 후배들과 서로 인터뷰하며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고 다른 곳에서 마주쳐도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림 수업에서는 태블릿을 컴퓨터와 연결한 후 앱으로 인물이나 다른 것을 그려보며 그림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카메라 담당자가 되어 캠코더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외부로 인터뷰를 나갔을 때도 척척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워서 너무 재밌었고 언젠가 꼭 필요한 활동이 될 거로 생각하기에 무척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기성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이웃, 안부를 묻다」인데 이웃을 인터뷰해야 하고 그 이야기로 여러 활동을 해야 하는 제가 정작 주변 이웃에 관심이 없고 어떤 분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는 저도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동탄의 장점을 물었을 때,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동탄은 다양한 취미 문화, 높은 학구열, 좋은 이웃으로 이루어진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멋진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담당이라,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가끔 취미로 편집해보긴 했지만, 프로젝트로 맡은 건 처음이라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영상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고 친구들도 너무 좋다고 해주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웃, 안부를 묻다」를 통해 저도 더욱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웃에 관심이 없던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끔 이웃과 마주치게 되면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친구, 동생들과 함께 하니 든든한 느낌이 들었고 더욱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이 다 처음 해본 거라 미숙하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이번엔 아쉬웠던 활동을 더욱 보완해서 보다 나은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임나현

「이웃, 안부를 묻다」는 수행평가를 확인하러 들어간 학급 게시판에서 우연히 보고 알게 되었다. 학기 초였는데, 시험과 수행평가로 바쁘다 못해 개인적인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신청 페이지까지 들어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포기했다.

얼마 후, 자율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고 동아리 담당 김민지 선생님께 말씀드리러 갔



는데, 「이웃, 안부를 묻다」프로젝트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한 번 참여 해 볼래?”라고 제안하셔서 자연스럽게 다음 수업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각각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나갔다. 작가님께 수업 받고, 그림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하며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경험을 쌓았다.

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인터뷰’에 관해 걱정이 많았다.

‘인터뷰할 시간이 있을까?’

시험과 수행평가로 인해 친구와 만날 시간은 줄고, 학원에 있는 시간은 점점 늘고 있었다. 친구들은 한 학기를 시험과 수행평가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걱정을 한 내가 어이없을 정도로 인터뷰할 시간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인터뷰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뷰 자체가 촬영과 함께 진행되다 보니, 인터뷰를 요청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분들 덕에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구성할 땐 질문에 초점을 두고 상의를 많이 했다. 서로 질문에 대해 먼저 생각해 오고 질문을 뽑고 뽑아서 선정했다. 많은 질문이 나왔지만 ‘이웃’이라는 키워드에 최대한 맞춰서 질문을 맞추려고 했다. 우리가 뽑은 질문을 인터뷰 대상자분께 드리고 답을 듣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나는 원래 시작은 빨리하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걱정이 쌓이고 쌓여서 중간에는 걱

정이 극에 달한다. 마무리할 때는 또 걱정이 없어지는 성격이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1학기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2학기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걱정을 더 했다.

1년에 4번을 시험을 보고 1년 동안 수시로 수행평가를 보면서 가끔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준 게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젝트였다.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이라 생각지 못한 일도 많이 생기고 변수가 생겨 내가 사람이란 걸 깨워주는 것 같았다. 아마 「이웃, 안부를 묻다」가 아니었다면 나는 2023년을 기계처럼 살고 있지 않았을까?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1년이 빠르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나는 많이 성장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10대들 사이에서는 어리지도 않고 나이가 많지도 않은 딱 중간 나이다. 처음 보는 시험과 많은 수행평가 사이에서도 뜻깊은 경험을 했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법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조용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원래 잘 모르던 친구와도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수업을 해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기억에 잘 남게 해주셔서 배운 내용이 거의 다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뷰하며 만난 분이 인생 상담, 고민 상담 등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데 팁을 주셔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전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웃을 만나도 휴대전화나 층 표시등만 보며 외면하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해도 긴장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하고 먼저 말을 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며 점점 뿌듯해지고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웃을 만나도 ‘아, 언제 도착하지?’, ‘어, 아는 사람이네?’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요즘 어떠세요?”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퍼져나간다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서로를 돕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며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 온 행동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남을 대할 때 내 행동에 관해 고민하고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길었더라면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웃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는 그림을 담당했는데 그림을 그리며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다 그릴 수 있을지 생각하며 보고 있다가 어느새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 꿈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제 꿈을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며 우리 동네에 대한 이웃의 생각, 제가 생각하는 동네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며 저 또한 동네의 좋은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는 문제해결력, 협동력 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프로그램이라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한 친구의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해서 신기했습니다.

프로젝트로 쌓은 소중한 인연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존재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하거나 조금 다른 주제로 한 다 해도 또 한 번 참여할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바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운서

처음에는 영어 수업을 먼저 하기 싫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카메라 조작, 인터뷰 섭외 방법, 편집하기, 패드로 그림 그리기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수업을 받으면서 재미를 느꼈다.

모든 수업을 다 듣고 실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친구들끼리 토의하고 이야기하며 인터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섭외였다. 처음에 많이 거절당하면서 또 다른 분께 연락을 드릴 때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되었다. 섭외 문자나 전화를 드릴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섭외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거 같았지만 의외로 재미있었다. 실제 첫 인터뷰를 갔을 때 마이크도 연결이 되지 않고 질문도 틀려서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공인중개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무척 감사했다.

공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동탄 8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좋았다.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없어서 힘들기도 했고, 첫 인터뷰여서 아쉬움도 있었다. 두 번째 인터뷰였던 에센츠책방카페에는 작가님과 선생님께서 같이 가주셔서 긴장이 덜 되었다. 카페 안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시는 점이 흥미로웠고 환경에 관한 활동도하신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원고를 작성할 때 처음 해보는 작업이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인터뷰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인터뷰를 더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의 좋은 경험을 한 거 같아서 좋았고 친구들과 다 같이 해서 재미있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웃이 그냥 옆집에 사는 위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

다. 수업을 듣고 나서는 우리 주위에 모두가 이웃인 것 같다. 많은 분이 마을이나 동네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웃이 윗집 아랫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웃 안부를 묻다」는 나를 더 성장하게 해준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워서 좋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해서 재미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윤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계기 중 가장 큰 부분은 '진로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생각이 많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생각만 했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도를 해보거나 도전을 해본 경험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를 봤습니다. 신청 대상 중 'PD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보고, 저의 많고 많은 꿈 중 하나인 PD로 도전해 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해보기 전 글을 쓰는 방법,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촬영한 영상물을 편집하는 방법, 태블릿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 등 글, 그림, 영상 수업을 받았습니다. 캠코더를 처음 보기도 했었고 카메라를 다뤄본 것도 처음이어서 촬영 수업을 받을 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또, 여태껏 종이에만 그림을 그리다가 태블릿을 이용하여 컴퓨터 위에 그림을 그려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책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담은 이야기 중 독자분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건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글쓰기 수업을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인터뷰도, 편집도 척척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첫 인터뷰 날, 세종공인중개사사무소 박혜련 공인중개사님을 만났는데 마이크를 연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터뷰인 에센츠책방카페 정은경 대표님을 인터뷰하러 갈 때는 마이크도 한 번 더 점검하고 카메라도 신경을 더 썼었습니다. 카페 분위기도 좋고 두 번째

인터뷰여서 그런지 긴장도 전보다는 덜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가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까지 마치고 나니 이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더 나은 마을을 만들려고 힘써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멈춰있던 소통을 다시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섭외 문자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정말 심장이 말도 안 되게 빨리 뛰고 인터뷰할 때도 걱정도 되고 많이 떨렸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미래에 PD가 되었을 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웃을 그냥 옆집이나 위아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더불어서 사는 사람 모두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니 마음이 괜스레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과를 내게 돼서 좋았던 것보다 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친하게 지내지 못했을 친구들도 팀 활동을 하면서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자주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잘 끝냈을 때는 다 같이 기뻐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많이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 보면 짧고 길게 보면 길었던 활동이고 어렵다면 어려웠던 활동이지만 다음에 이런 활동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성장한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준

제가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생활기록부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동기가 자 이유는 같은 반 친구들의 권유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저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 힘든 점이 생겨났습니다. 매주 방과 후 수업을 들어

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졸릴뿐더러 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드로잉 수업이 재미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타고 호수공원으로 갔는데 올 때 버스가 너무 안 와서 오랜 시간 기다렸고 막상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필 축구를 한 날이라 말이죠. 인터뷰가 힘들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번째 인터뷰가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도 힘들긴 했지만, 저번보다는 덜 힘들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모두 끝나고 책을 만들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벼락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새벽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편 좋았던 일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할 일을 찾았던 것이었어요. 새로운 것도 배우고 직접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모두 희귀한 경험 같았어요. 제가 해냈다는 뿌듯함도 듭니다.

안태강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은 나에게 여러 방면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다. 일단 친구들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인터뷰한다는 것이 좋았다. 학교에는 학생이 직접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데 「이웃, 안부를 묻다」 같은 학교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았던 것은 우리가 직접 인터뷰 대상을 찾는 것이었다. 다른 학교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모두 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형태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선생님이 의견을 말해주고 거기에 우리의 의견을 붙이는 상황이라 좋았다. 우리가 그 길을 다 찾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만든 인터뷰 대사 종이로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아서 해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재미있었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뭔가 좋았던 것 같다. 특히 나는 그림이 좋았던 것 같다.

근데 단점이 있다. 모두 학생이 주관하여 만드는 만큼 부족한 점이 있다. 가끔은 선생님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부족

한 점이 많아도 즐거운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인터뷰하며 친구들과의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어 더욱 좋았다. 가끔 인터뷰 대상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다. 이것도 이 프로그램을 하며 생긴 하나의 추억이다. 난 이 프로그램이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한다면 다시 하고 싶다. 소감문을 쓰면서 프로그램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느낌이 다르고 재미있던 기억만 남은 것 같다.

최운진

내가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세하고 많은 수업을 할 줄은 몰랐지만, 촬영 방법, 인터뷰 양식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수업을 들을 때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다 끝내고 실제로 인터뷰 준비할 때가 가장 가장 어려웠습니다. 섭외하기, 대본 짜기, 역할 분담 등 많은 걸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중 섭외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섭외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대상자인가?', '우리가 인터뷰할 수 있을까?',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없을까?' 등 많은 생각을 하고 정하다 보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처음에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인터뷰하려고 해서 대본 짜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제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버스가 안 와서 힘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도 공인중개사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터뷰하기 위해 장비를 세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이크도 작동이 안 됐었고 카메라도 세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된 상태였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저희 긴장을 풀어주시려 노력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하는 도중 실수를 많이 했지만 잘 이해해 주셔서 편안하게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센츠책방카페를 방문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방문을 해주셔서 조금 마음이 더 편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보고 계셔서 더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할 때는 첫 번째 인터뷰 때보다 긴장을 덜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

께서 호의적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가까이 사는 사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서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서로 배려해 주는 주위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요. 저는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인터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심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잘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사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주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소감문을 작성하다 보니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또 있다면 한 번쯤 더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이산중학교 교사 김민지

#나날이새로워져라 #도전 #변화

교직 사회에 들어온 지 21년. 내 교직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도전'이다. 어떤 도전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거창하게 대답할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고자 노력했으며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나은 교육을 하려고 열의를 다했다. 그렇기에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나의 자존감이고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웃, 안부를 묻다」프로젝트는 2023년 나의 뜻깊은 도전이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나에게 이웃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말할 수 있다. 어제보다 오늘, 한층 더 성장하였다고.

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그 시작점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고, 도덕 교사인 대학 동기와 함께 교과수행평가로 이웃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도했었다. 프로젝트 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진심으로 수행을 한 학생들의 발표에서 따뜻함과 뭉클함, 성취감과 뿌듯함 등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경험이 나를 2019년 윤민재단이 주최한 챌린지스쿨로 이끌었고,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를 교과에 시도하게 했다.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는 '공감'과 '실천'이 핵심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아이디어로 만들어 해결해 보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하다. 특히,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후 발표 박람회를 통해 프로젝트 평가회를 가지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씽킹 프로젝트가 주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과 속 평가로 진행하다 보니 한계점이 많이 보였다.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교사 의도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시간에 쫓겨 일회적인 맛보기 수업처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좀 더 자유롭게 수업을 진행하되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싶었던 찰나, 화성시미디어센터의 「이웃, 안부를 묻다」프로젝트 설명회 공문을 보고 '이거다!' 싶은 마음으로 참가 신청서를 냈다. 감사하게도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8개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만약, 「이웃, 안부를 묻다」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싶은 동료 교사가 있다면, 나의 솔직한 후기를 들려주면서 도전하라고 응원하고 싶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에게 큰 업무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의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관 기관에서 여러 업무를 모두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강사 섭외부터 품의, 기자재 대여 등 잡다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 주므로,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은 담당자에게 바로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학교 업무가 많은 교사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실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잡무가 늘어난다거나,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업무적으로 가중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학생들과 도전해 볼 수 있고, 프로젝트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결과까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점이 나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다. 주관하는 기관과 작가님들만 수업에 대한 협의를 하다 보니, 교사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작가님의 수업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과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꼭 맞는 교육 내용을 설계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방과 후 2시간씩 9차례 작가님들의 교육을 받은 후 방학을 이용해서 인터뷰하러 거리로 나갔다. 막상 거리로 나간 학생들은 이웃을 인터뷰하기는커녕 누구에게든 말 걸기도 쉽지 않았다. 예상했던 어려움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이나 유사한 경험을 해결해 본 사람의 경험담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웃을 만나는 프로젝트를 막상 실시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갈피 잡기를 어려워했다. 이때 인터뷰 수업을 담당해 주셨던 출판사 대표 차영선 작가님께서 저희를 다독여주셨고 인터뷰 섭외부터 질문지 작성까지 도움을 주셔서 첫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그다음은 학생들이 스스로 여러 인터뷰를 성사했다. 내년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면, 수업의 내용과 작가 매칭, 수업 내용 선정 협의 등에 교사와 학생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제안한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참여 소감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와 비

교하며 현재 변화된 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2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에서 흔히 해 볼 수 없는 경험을 해 본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내년에 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나로서는 매우 고마운 피드백이고 힘이 나는 응원이었다. 물론 쓴소리도 있었다. 배워야 하는 교육이 많고, 인터뷰 후 책과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이 힘들어서 내년에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 쓴소리는 내게 좌절이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 전에 미리 화성시미디어센터처럼 프로젝트 설명회를 자세히 실시하여 방과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 배움의 경험을 제공해야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누가 나에게 내년에 또 이 프로젝트에 도전하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무조건 'YES'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생겼다. 이산중학교 '기억의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것! 나에게 있어서 이웃은, 내 옆에 앉아 있는 동료 교사, 교감·교장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이산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다.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우리가 함께 한 시간 속에 남기고 싶다. 나에게 또 다른 열정을 불어 넣어 준 「이웃, 안부를 묻다」프로젝트, 귀한 기회를 준 화성시미디어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산고등학교

안재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이웃끼리 사이가 돈독한 게 너무 신기했고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웃끼리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었는지, 지금 나도 이웃과 돈독하게 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많았었다. 그렇지만 이웃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나눌 뿐 더욱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웃, 안부를 묻다」라는 프로젝트로 주변 이웃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져 보고 싶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예전부터 인터뷰도 해보고 싶었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배우고 싶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몰랐고, 엄두가 안 나기도 했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 마침 화성시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발견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수업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법,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만드는 법, 캠코더로 촬영하는 법, 책에 실릴 그림을 그리는 법, 편집하는 법 등을 배웠다. 인터뷰를 배우는 과정 중에서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 직접 인터뷰해 보는 시간이 있었다. 친구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기본적인 내용 말고도 신선한 질문을 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고, 그것을 내가 질문을 해서 알아내는 과정이 보물찾기하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또한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배울 때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을 때는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기기라 신기했고 완벽히 그 기계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시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그림을 그릴 땐 전문 장비에 그려서인지 종이에 그릴 때보다 더 잘 그려지는 느낌을 받았었다. 이 모든 배움의 과정을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해서 더욱더 즐거웠다.

우리 팀원이 적기도 하고 각자 하고 싶은 분야가 확고하지도 않아서 딱히 정해진 역할이 없이 두루두루 진행했다. 나는 편집은 안 해봤지만, 촬영기기 설치도 해보고, 섭외도 해보고, 인터뷰 준비와 진행도 해봤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인터뷰 준비와 진행이었다.

인터뷰를 준비할 때 뻔하지 않은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궁금했던 것을 하나하나 질문에 담아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또한

인터뷰 도중에는, 진행 순서에 맞춰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게 질문해야 해서 이야기를 듣느라, 질문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인터뷰의 모든 과정에서 나는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제일 바빴던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섭외와 촬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 과정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먼저 섭외가 안 되어서 이후의 일정 진행이 힘들 때, 주변 친구들과 인터뷰를 마친 후 그 다음 일정을 진행하려 할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인터뷰 해야 할지도 잘 몰라서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 또, 인터뷰 대상자분께 미리 사전 연락을 드려야 했는데 연락드리는 법도, 연락해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무척 당황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 2주 동안은 인터뷰 섭외만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진행될 땐 후련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앞으로도 이 모든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또 촬영본이 이상했던 적도 기억이 많이 남는다. 학교에서 인터뷰할 때는 찍고 보니 마이크가 연결이 잘 안되어 오디오가 촬영본에 잘 들어가지 않아 한 명만 목소리가 크게 찍힌 경우도 있었고, 마이크에 넣을 건전지가 없어서 근처 편의점까지 뛰어가 건전지를 샀던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메모리카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기기는 세 대가 있지만 한 카메라로 밖에 못 찍었던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엉망진창으로 시작했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질 좋은 인터뷰를 한 것 같아 뿌듯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책과 영상에 들어가 있을 생각에 무척 기대된다.

강다경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콘텐츠 기획과 영상 촬영에 흥미를 느꼈지만,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했다.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에 친구를 통해 '이웃, 안부를 묻다'라는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인터뷰 촬영이 간단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인터뷰 대상 선정, 질문지 작성, 기획안 구성, 초상권 활용 동의서 획득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웃과의 인터



뷰'를 통해 이러한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여러 강의 중에서 컷과 샷 사이즈, 촬영 기획안 및 구성안 작성에 관한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촬영 용어를 배우고 실제 촬영 시 어느 각도에서 촬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카메라로 직접 촬영 실습을 진행하면서 카메라와 마이크 작동 원리를 새롭게 알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웃, 안부를 묻다」프로젝트는 주변 이웃에게 직접 안부를 물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그동안 말을 걸어보지 못했던 주변 이웃에게 직접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웃의 사소한 일상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한 후 들었던 대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평소에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사람 대부분이 이웃과 반갑게 인사하며 잘 지내고 싶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나도 이웃을 만날 때 주저하지 말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람들이 이웃에 관심을 가지며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정지영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만 지내던 시기가 지나고 요즘은 거리를 돌아다니고 학교를 오가면서 이웃과 마주치는 일이 많다. 등교할 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이 건널목을 건너는 학생, 매일 가는 카페 사장님처럼 주위의 많은 이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오늘 무얼 배웠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단골 빵집에서 서비스로 파배기를 먹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윗집 아랫집 이웃과 안부를 묻던 예전의 기억 속 이웃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이웃과 조심스럽고 서먹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웃, 안부를 묻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보았다. 우리 팀은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연령대의 이웃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을 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테마의 인터뷰를 진행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을까?’, ‘그 이웃의 나이에 따라 이웃들에 대한 기억, 현재 이웃들에 대해 인식이 다를까?’라는 질문이 생겼고, 우리는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웃부터 우리 주변에 있지만 낯선 이웃까지 다양한 이웃을 인터뷰하면서 궁금증을 풀어 나가보았다.

우리 팀은 초·중·고등학생, 카페 사장님, 학원 선생님, 경로당 어르신을 인터뷰했다. 나는 이 중에서 학원 선생님과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내가 4년간 다닌 학원의 선생님이자 이웃이다. 많이 뵈는 것에 비해 아직 궁금한 것도 많고, 아무래도 조금은 어색함이 있는 사이라고 느껴져서 인터뷰를 계기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진행 전부터 많은 기대를 했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선생님의 고충, 학생에 관한 생각, 우리 동네 학생 이야기, 궁금했지만 실례인 것 같아 물어보지 못했던 사적인 이야기까지 들으며 더욱 흥미로웠고, 선생님과 학생, 이웃으로서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많은 이웃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그들을 궁금해 하고,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표현해 본다면 더 따뜻한, 이웃과 함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본다.

강태현

저는 인터뷰 촬영과 중간중간 스냅샷을 찍고 영상 편집을 맡았습니다.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점은 인터뷰 촬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과 여러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 시간 내에 촬영을 끝내는 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웹드라마를 촬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친구들과끼리 했었기에 예상한 시간 내에 끝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인터뷰는 예정한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촬영 장비를 들고 한참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편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인터뷰 편집은 처음이라 대화에 따라 캠을 바꿔야 한다는 점, 30도 법칙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멀티 캠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캠은 두 개만 이용했기에 더욱 쉬웠습니다. 편집은 자막을 일일이 직접 쳐야 하거나 자동 입력된 자막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사실상 막노동과 같은 일이 제일 걱정되었는데, 유튜브에서 챗GPT를 이용한 자막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보고 챗 GPT의 기술력 덕분에 아주 적은 수정만 거쳐 자막 편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촬영만 좀 힘들었지, 편집은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웃, 안부를 묻다」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계획했을 때는 사실 좀 설레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충북에서 살다가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 사촌, 동생을 예뻐해 주시던 동네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었는데, 경기도권으로 오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도시는 확실히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동생은 제가 겪었던 마음 따뜻한 추억을 겪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충주에서 살 때는 심심할 때마다 놀이터에 갔습니다. 항상 놀이터에 제 친구들이나 또래가 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놀고 있었기에, 처음 보는



사이여도 함께 놀며 친해지고 다음에도 놀자는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사를 한 뒤로는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다 보니 이런 추억이 쌓이지 못해서 슬펐습니다. 저에게 이웃이란 정말 좋았던 추억이고 그리운 사람이었는데, 이웃을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점이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는 서로 경계를 좀 하다 보니 혹시 일이 잘 안 풀릴까 봐 걱정도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모두 어릴 적 제 추억 속 이웃처럼 따뜻하고 반갑게 저희를 대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며, 여러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동네에서 항상 인사할 준비를 하며 걸어 다닐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미래에 제 자녀들이 저처럼 이웃에 대한 좋은 추억이 생길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산고등학교 교사 강보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던 2020년을 기억합니다. 전 국민이 전염병의 공포에 떨며 마스크를 사서 집에 쥘 여념이 없던 2020년의 초, 주변 사람들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방해하는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또, 마스크 생산이 늘어난 뒤의 사람들은 언제든 내게 침방울을 튀겨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존재이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될 존재였지요. 저는 그동안 마스크가 코와 입을 가려 질병의 전파를 막아주는 고마운 물건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의 얼굴을 가려 웃음마저 나눌 수 없게 만드는 차갑고 냉정한 물건이기도 하더군요. 이런 마스크를 가까이 하며 친구나 이웃과 멀어진 채로 지낸 시간이 어언 1년, 2년, 3년... 다 큰 어른이었던 저조차 재택 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제한 등으로 소통의 부재와 고립된 분리감을 느꼈는데, 친구와 손잡고 놀기는커녕 학교에 오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얼마나 더 외로웠을까요? 어른들의 3년과 아이들의 3년은 분명 같은 무게가 아니었을 겁니다.

2023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된 시기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마스크 속에 감춰져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낯설던지요. 갑작스레 쏟아지는 표정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다가 마스크 벗은 사람을 접하고 엉엉 울었다는 웃지 못 할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웃,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 진행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와 지역사회 간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할 거란 생각에 학생들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웃을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누구 인터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학생들과 이웃의 범위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 하는 학생들에게 소통의 방법을 조언해주며 이웃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두근거림을 느끼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발적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도 찾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이웃과의 감정적 연결을 다시 찾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 화성시미디어센터에서 도와주신 미디어 교육 역시 정말 유익했습니다. 많은 강사님께서 학교까지 오셔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기기도 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든든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미디어 교육을 넘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었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볼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었고, 함께함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이웃과의 연결감을 높일 수 있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화성시미디어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해봅니다.

이웃의 손보다 손소독제가 더 반갑던 느껴지던 때가 지나고, 이제는 이웃과 악수를 하고 뜨겁게 안아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이 인터뷰한 여러 이웃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내 주변의 이웃도 돌아보면 어떨까요?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화성시미디어센터
전자우편	media@hcf.or.kr
기획	박양우
참여학생	이산중학교 박세준, 안보현, 안태강, 이나예, 이윤서, 이윤아, 임나현, 조용준, 최윤진 이산고등학교 강다경, 강태현, 안재윤, 정지영
프로그램 강사	차영선, 현지윤, 김지현
출판	차차책고
디자인	루아흐 디자인

- 「이웃, 안부를 묻다」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화성시, 화성시미디어센터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